

바라밀현장

동대한방병원 혜명양로원 무료진료

“ 침 한방에 웃음 꽃아드려요 ”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의 의료진들이 12일 혜명양로원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펼치고 있다.

“할머니, 침 뺐 때 됐어요. 일어나셔야죠.” 넋직한 모포자락에 누운 할머니, 이상하게 말이 없다. 의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자 부스스 눈을 뜬다. 오후 해는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까지 출렁이니 낮잠을 이길 길이 없다. 편안대로 누워 휴식을 취하는 그를 사이로 의사와 간호사의 시침과 소독이 한창이다.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씀씀이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는 서울 혜명양로원 무료 진료 현장.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의료진들이 한 마음으로 꾸려가는 바라밀 현장이다.

이날도 한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원무과 직원 1명이 침과 약품 등을 챙겨 30여분을 달려왔다. 24명의 전문·일반수련의가 조를 나뉘 돌아가며 찾게 되는 양로원. 짧은 시간에 30~4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려면 신경이 예민해질 법도 한데, 의료진의 얼굴은 밝기만 하다.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의대 재학 시절부터 진료봉사가 제 생활이 됐으니까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 갑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불교계 양로시설인 혜명양로원의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8년째. 진료 차 양로원에 들른 것이 인연이 돼, 한달에 한 번씩 무료로 한방 진료 봉사를 이어가게 됐다. 현재 분당 한솔사회복지관과 혜명양로원의 무료 진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들은 광주 나눔의 집, 분당 청솔복지원 등에서도 수년간 진료봉사를 펼쳤었다.

한방 내과 전문의 백진원 씨(28)에겐 봉사 자체가 일상이었다. 그런 그에게 무료 진료 봉사의 특별한 의미를 물어내려 할수록 ‘생활 속 무주상보시’의 의미가 되새긴다. 백 씨의 말을 증명해 보이듯 의료진에게서는 어떠한 권위도 엿볼 수 없다. 쪼그리고 앉아 침

을 놓는 모습이 영락없이 동네청년이다. “어르신, 아픈지 얼마나 됐어요?” “나? 한 20년 동안 아팠어.” “20년 동안 아팠던 건요, 금방 못 고쳐 드려요” 의사의 장난기어린 농을 듣는 어르신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이처럼 이들 간

진료 인연돼 8년째 무료 봉사 권위 찾을수 없는 무주상보시 실천 침술·낙살에 양로원 웃음 가득

에는 벽이 없다. 사이를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레이싱을 동시에 쫓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에 한바탕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양로원은 임시진료소라기 보다는 동네 어르신들과 낯선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데마 사랑방’에 가깝다. 진료가 있는 날엔 주

민들까지 찾아와 애절한 분위기를 더한다. 의료진이 이처럼 ‘침술’과 ‘낙살’을 함께 준비하고 나선 것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병원진료와 양로원진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왔던 이동권 씨(27)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양로원 어르신들의 기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가 큰 것이 아닐까 라고도 추측해 봤지만, 산간 시골마을 무료 진료 봉사를 다녀오고 생각을 달리했다. 넘겨치 못한 건 매한가지였지만 시골에 마련된 진료소에는 웃음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겠지만, 한 방의 침으로 막혔던 웃음을 뚫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환자에게 약봉지를 쥐어주는 의사의 손짓에서 문득 약사보살의 수인을 보게 된다. 의료진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짜 보살을 보게 되는 건 시간문제 아닐까. 김신재 기자 thaisw@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툽텐 최핀 (1)

‘서구 비구니의 삶’ 공동 설립자

“우리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원숭이들이 한 물건을 잠시 갖고 놀다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이 생각에서 저 생각, 이 감정에서 저 감정,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내달리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우리 밖에서 찾을 뿐, 참된 행복의 열쇠인 마음을 간파하기 때문입니다.”(‘원숭이 마음 길들이기’ 중에서)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법우재단(Dharma Friendship Foundation)의 상임법사인 툽텐 최핀(Thubten Chodron, 53) 스님. 그녀는 마음 밖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곤 한다. 그래서 스님은 “원숭이 같은 마음을 길들이 나가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잠재력과 만날 수 있다”며,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도 전세계로 전법여행을 다니고 있다.

불교와 유대교 등 종교간 대화의 업적으로 2001년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훌륭한 여성 불자’ 상을 수상한

년 뒤인 1986년, 대만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최핀 스님은 인도와 네팔에서 달라이 라마, 텡잡 시공 린포체, 조파 린포체 등 여러 티베트 고승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했다. 이후 2년간 이탈리아에서 라마 조카파 센터에서 수행프로그램을 지도했다. 뒤이어 프랑스의 도르제 파모 사원에서 3년간 공부한 뒤 싱가포르 아미타불센터 상임법사로 활동했다. 이후 10년간은 미국 시애틀의 법우재단 상임법사로서 수행지도를 해왔다.

최핀 스님은 ‘서구 비구니의 삶’이란 단체의 공동 설립자로서 1993년과 1994년,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서구 불교 스승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석했다. 유대교와의 종교화합에도 앞장 선 그녀는 1990년 ‘로저 카메네츠의 연꽃 속의 유대인들’이란 책의 기초가 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인도 다람살라 방문을 주선했다. 종교간의 대화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달라이 라마와 서구 과학자들간



◇툽텐 최핀스님.

불교·유대교간 대화 등 종교화합에 앞장

일상에서 가르침 응용해 실천할 것 강조

며 널리 알려진 최핀 스님은 1950년 태어나 미국 L.A. 근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1971년 L.A.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졸업후 1년 반 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를 여행한 뒤 고구려를 받고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남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녀의 불교 공부는 1975년 라마 예쉬 스님과 조파 린포체가 지도한 명상 수련회에 참가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그 후 그녀는 네팔의 티베트 사원으로 찾아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77년, 드디어 그녀는 사미니(sramanika)계를 받았으며 9

의 대화모임인 ‘정신적 삶에 대한 토론회’에도 관여했다. 최핀 스님은 정기 수련회나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다.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구권 국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각국의 전법 현장에 서 서구인들을 위한 티베트 불교 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녀는 현재 슈라바스티(Shravasti) 사원을 설립하는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많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해 온 최핀 스님은 일상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응용할 것을 강조해 왔다. (계속) 김재경 기자

선으로 푸는 금강경 강좌 잇따라 열려

바로 이 자리가 진리 그자체



◇공생선원의 참선법회 모습.

“본래 부처자리는 절대계의 세계로 그 자리의 한 생각이 상대계로 나뉜 것이 ‘이와 같은(如是)’ 것이며, 절대계와 상대계는 ‘이와 같이’ 하나로 돌아갈 뿐입니다.” 서울 공생선원 원장 무각스님은 ‘여시아문(如是我問)’이란 문구에 이미 금강경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다며 이렇게 ‘여시’를 해석한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시공간에서 부처의 세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

금이 자리에 이와 같이 펼쳐진 세계가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다. 무각 스님은 이처럼 금강경을 선(禪)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그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으로 푸는 금강경’ 강좌를 9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개설한다. 오전반(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7시30분~9시30분)으로 나뉜 강의 하며 일상 속에서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방하착(放下着) 공부를 일깨우고 있다. (02)900-2448 공생선원과 같이 금강경을 선으로 풀이하는 법회는 이밖에도 여럿 있다. 부산 무심선원 원장 김태연 교수(부산대

철학)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선으로 읽는 금강경’을 강의한다. (05)1515-7226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등 7(寶)경전을 모두 외워서 해석하는 대한불교보림회 회장 성상현 법사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8시30분 금강경을 강의한다. (02)739-1044 서울 강남교포원 (02-539-2631) 원장 성열스님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선으로 푸는 금강경’을 강의하며,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중) 회원들은 매일 아침·저녁 ‘마음을 닦는 방편’으로(금강경)을 하루 7독송하며 정진한다. (02)742-0172 김재경 기자

대강백 무비 스님이 10년만에 다시 펼치는 금강경 강의!

무비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과연 금강경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처임을 전면에 걸쳐 끊임없이 자각시켜 주는 무비 스님의 감동적인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은 삶을 통찰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껏 시대와 나라,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아 온 경전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정성 들여 다듬고 다듬은 우리말 번역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금강경의 의미와 금강경이 던져주는 지혜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강의한 내용을 풀어쓴 것으로, 마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듯한 생동감과 일체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무비 스님/신국판/312쪽/9,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www.buddhabook.co.kr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